

아버지의 이름으로 ... 초보 아빠들 '분유 버프'



최형우·나지완·윌랜드·안치홍
4월까지 줄줄이 아빠 대열 합류
"아이 생각에 힘 난다" 이구동성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에 '분유 버프'가 함께 할까?

아빠가 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 팬들은 '분유 버프'를 이야기한다. '분유 버프'는 분유값을 벌기 위해 평소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올 시즌 KIA에는 '분유 버프'를 기다리는 선수들이 줄을 섰다. 그 스타트는 최형우가 끊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 타자 최형우는 지난 1월 초 자신을 꼭 닮은 아들을 얻으면서 '초보 아빠'가 됐다.

첫아들을 만나느라 예년과 달리 콕 개인 훈련을 건너뛰었지만 최형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았다.

아이 앞에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린 아빠 최형우. 하지만 야구 선수로서의 마음과 각오는 특별하지 않다.

최형우는 "아이가 태어난 것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지만 부모의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며 "원래부터 간절하고 절실하게 야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올 시즌을 보내겠다"고 언급했다.

다음 주자는 나지완이다. 나지완은 3월 초 '환희(태명)' 아빠가 된다.

아빠를 닮아 체격이 남다르다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나지완은 가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예정일이 임박하면서 나지완은 선수단보다 앞서 5일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나지완은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캠프를 보내는 마음이 남다르다. 아이도 태어나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부상 없이 팀에 보탬이 되는 활약을 하고 싶다"며 "다른 애들보다 체격이 크다고 한다. 벌써부터 어르신들은 야구를 시키겠다고 하신다"고 웃었다.

조 윌랜드도 첫 아기를 만나기 위해 3월 시범경기 등판을 한 차례 소화한 뒤 고향에 다녀올 생각이다. 윌랜드는 미국행을 위해 피칭 일정도 앞당기면서 부지런히 아빠와 타이거즈 선수로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꽃피는 봄에는 안치홍 주니어가 태어난다.

아시아게임 당시 임신 소식을 들었던 안치홍은 '금메달'과 자신의 별명이 '찌퐁'을 섞어 태명을 '금찌'로 정하고 4월을 기다리고 있다.

안치홍은 "캠프 막바지라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와이프와 아이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고 있다. 아빠가 된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그동안과는 다른 책임감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FA도 앞두고 있는데 이에 관한 생각은 특별하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FA를 의식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하겠다. 지난해 부상으로 쉬어가기도 했는데 올 시즌에는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최형우



나지완

1이닝 10실점·한승혁 부상...두번 운 KIA

요코하마와 연습경기 12-12 무승부...선발전 구성 빨간불

KIA 타이거즈가 일본 팀과의 마지막 연습경기에서 수비와 부상에 올랐다.

KIA는 26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완 구장에서 열린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와의 연습경기에서 12-12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습경기 첫 승을 놓친 KIA는 한승혁의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겪었다.

KIA는 3회초 최형우의 만루포 등을 앞세워 8-0 리드를 잡는 데 성공하며 연습경기 5연패에서 탈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KIA는 10-2로 앞선 7회말 수비에서 유격수 실책과 피홈런 등으로 대거 10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유민상의 중전안타로 시작한 9회초 2점을 뽑아낸 KIA는 12-1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11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주니치 드래곤스, 히로시마 도요카프,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을 상대한 KIA는 1무 5패로 일본 팀과의 연습 경기 일정을 종료했다.

'10실점'이 기록된 7회보다 6회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다.

제이콥 터너, 조 윌랜드에 이어 팀의 세 번째 투

수로 나온 한승혁이 첫 타자 호소카와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한승혁은 병원 검진 결과 근육통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도 내전군 부상으로 조기 귀국을 했던 만큼 경과를 지켜본 뒤 다음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2회말에는 터너가 상대 강습 타구에 가슴을 맞으며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행히 터너는 이상 없이 3회까지 소화한 뒤 마운드를 내려갔다.

최고 구속 150km의 직구를 앞세운 터너의 성적은 3이닝 1피안타 무실점.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도 구사했다.

한편 KIA 캠프 명단에 변화가 생겼다.

발목 수술 여파로 대만 퓨처스 캠프에서 시즌 준비를 시작했던 이명기와 함께 유재신, 김주형이 오키나와 캠프로 이동했다.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해왔던 오정환은 대만 캠프에서 실전을 소화하게 됐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한승혁이 26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완 구장에서 열린 요코하마전에서 내전군 부상을 입고 강판됐다. 사진은 지난 18일 히로시마전 등판 모습.

박진섭 감독 "광주 FC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개막 미디어데이... 주장 김태윤 "무조건 승격" 시즌 각오 밝혀

광주 FC가 '무조건 승격'이라는 단어로 2019시즌의 각오를 밝혔다.

하나원큐 K리그 2019 개막 미디어데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광주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주장 김태윤과 박진섭 감독은 장밋빛 2019시즌을 예고했다.

김태윤은 '5자로 말하는 올 시즌 각오'에 대한 답으로 '무조건 승격'을 언급했다.

그는 "모든 팀이 그렇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다. 올해는 무조건 승격을 이뤄내겠다"며 승격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김태윤이 '원팀 광주'를 위해 내세운 것은 '소통'이었다.

김태윤은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이 선후배 관계가 아닌 친구같은 형, 동생처럼 지내며 끈끈함 유대

감을 형성하고 있다"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곧바로 경기장에서 보여질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역시 승격을 언급한 박진섭 감독은 '난적'으로 아산 무궁화를 꼽았다.

박 감독은 "지난 시즌 우승 경험이 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핵심 멤버들이 아직 존재하다. 전력상 가장 강한 팀이 될 것이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며 아산을 승격 싸움의 맞수로 언급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고 싶지 않은 팀'으로 언급했다.

박 감독은 "전남이 같은 전라도 팀이기도 하고 같은 노란옷을 입기 때문에 꼭 이기고 싶다"며 "전남이 강등됐지만 좋은 선수를 많이 지켜냈기 때문에 볼으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다.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진짜 노란색을 가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상호의 공백을 채울 선수로는 김정환을 주목했다.

박 감독은 "김정환이 올 시즌 기대가 된다. 이전엔 나상호의 부재를 메꿀 공격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김정환은 몸이 많이 올라왔고 올림픽 대표 발탁 등 동기부여도 상당하다"며 "올 시즌 측면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광주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박 감독은 '쉽지 않은 광주'의 모습도 강조했다.

"개막전 상태 팀에게 기선 제압 한 마디"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박 감독은 "올 시즌 이랜드에 새로 부임한 김현수 감독에게 K리그2,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며 "2부리그는 승격을 위해 10개 팀이 전쟁을 하는 곳이다. 우리와의 첫 경기를 통해 광주, 그리고 K리그2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고 개막전 필승 의지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유만만' 최지만

탬파베이 감독 '주전 선수' 낙점...시범경기 세번째 출전 앞뒀

미국 생활 10년째, 기회에 목말랐던 최지만(28·탬파베이 레이스)이 그 갈증을 풀었다

최지만은 26일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시범경기 출전하지 않았다.

과거 최지만은 '시범경기 결정'에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최지만은 이날 같은 조에서 타격훈련을 한 아비 세일 가르시아, 안디 디아스 등과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했다. 이들은 2019년 탬파베이의 주축 타자들이다.

이미 최지만은 27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 2번타자 1루수 출전에 예정돼 있다.

2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25일 뉴욕 양키스 전에서는 3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각각 5회까지 뛰었다.

'주전 선수'로 낙점받은 터라 최지만은 시범경기 초반에는 '경기 출전-휴식-경기 출전-휴식'의 일정을 소화한다.

최지만은 "스프링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구단과 감독님께서 나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언질을 주셨다. 예전에는 시범경기 결과에 연연했지만,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훈련하고 있다"며 "시범경기 도 훈련의 연장선에 있다. 오픈 스탠스도 해보고, 어깨도 일찍 열어보는 등 타격 자세에 변화를 시도해보고 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변화를 시도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캐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은 "최지만은 1루수와 지명타자로 올해 많은 경기를 치를 것이다.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연합뉴스